

울산항, 액체화물 줄며 물동량 감소 일반화물·컨테이너는 ‘증가 흐름’

울산항만공사, 3월 물동량 1532만 t
원유·석유제품 부진 액체화물 축소
수출 호조에 일반화물 3.3% 증가
중·인니 교역늘며 컨테이너 21%↑



페르시아만 일대에 정박 중인 우리 국적 유조선이 이달 상순 울산항만공사의 지원을 받았다. UPA

중동 사태에도 불구하고, 울산항을 거치는 일반화물과 컨테이너 화물의 양이 외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석유류 등의 액체 물동량은 감소했다.

14일 울산항만공사(UPA)에 따르면 지난 3월 울산항 총 물동량은 1532만 t으로, 전년동월 대비 9.7% 감소했다. 전쟁의 영향으로 액체화물이 줄어든 데 따른 감소다. 공사는 그러나 일반화물과 컨테이너화물은 증가했다고 밝혔다.

액체화물은 울산항의 대표 화물이다. 미국산 원유 수입이 소폭 증가했으나, 전반적으로 원유 수입 및 석유정제품 수출이 줄었다. 액체 물동량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3.6% 감소한 1165만 t이 처리됐다.

일반화물은 전쟁·관세 여파에도 국내 자동차 수출액이 3월 기준 역대 2위를 기록하는 등 친환경자동차 수요 증가세가 국제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힘입어 울산항의 미국 자동차 수출량(18만 t·35.8%↑)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일반화물이 전년 대비 3.3% 늘어난 323만 t을 기록했다.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아시아 권역 내 울산항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인도네시아와의 교역량이 증가했다. 이에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1.4% 증가했다.

변재영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중동정세 긴장 고조로 에너지 물류 여건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며 “국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지원과 주요 화물 물동량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에너지 물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이달 상순 페르시아만 일대에 정박 중인 한국 국적의 유조선에 ‘선용품’ (식료품 등 선박에서 사용되는 물품)을 지원했다.

이 선박은 지난 3월 울산항에 입항 예정이었으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해상에 한 달 넘게 발이 묶인 상태다.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등 20여 명이 승선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장기간 대기로 인해 부식과 생수, 휴지, 세제 등 생

필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원들의 생활권 보장 및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긴급히 지원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봉쇄 이후, 선사 및 현지 네트워크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왔다. 또 입항 예정 선박들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해 왔다.

선용품을 지원받은 한 선원의 소감도 전해졌다. 그는 “타국 해상에서 대기가 길어지며 피로도와 불안감이 극에 달했는데, 울산항만공사의 세심한 배려에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변재영 사장은 “앞으로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기 중인 울산항 입항 예정 선박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고객만족도 평가 ‘매우우수’ 획득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 이용절차 간소화 성과 인정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추진해 온 항만 이용절차 간소화, 이용고객 맞춤형 서비스 등이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호평을 받았다.

공사는 해양수산부가 이달 초 발표한 ‘2025년도 기타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5개 등급 중 으뜸인 ‘매우우수’를 획득했다.

공사는 ▲항만시설 관리·운영 및 서비스 제공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운영 부문의 전 평가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고객의 체감만족도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킨 점을 인정받았다.

그동안 항만 이용절차 간소화와 실시간 정보제공 확대, 항만 이용고객 맞춤형 서비스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객만족도 평가는 항만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 이용 편의성, 대응 신속성, 전반적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정부의 공식 평가 체계다. 공공기관의 고객 중심 경영 수준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특히 이번 평가에선 고객만족도 평가 등급 체계가 한층 고도화됐다. 기존 3개 등급(우수, 보통, 미흡)에서 5개 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세분화된 것. 보다 엄격해진 평가기준에 따라 변별력이 커진 상황에서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관호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성과는 기준이 높아진 평가 환경 속에서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항만을 근본적으로 바꿔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만족을 관리의 대상이 아닌 모든 의사결정의 출발점으로 삼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혁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aT, 추경 활용 농식품 지원 확대 모색

정책·예산분과 혁신자문위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올해 임선부 대상 친환경농산물, 대국민 농축산물 할인 등 부문에서 지원책 확대를 모색 중이다. 지난달 확보한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4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정책·예산분과 혁신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추경예산 활용 ▲중점사업 및 신규정책사업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aT혁신자문위는 생산·수출, 조직·경영, 정책·예산 등 3개 분과로 구성된 공사 자문기구로,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는 4월 말부터 매주 분과별 자문회의를 개최해, 국정과제 및 혁신전략이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

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생산·수출 분과회의에서는 농수축산물의 생산연계 지원 및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중점 추진현황이 제시됐다. 조직·경영 분과에서는 AX(AI 전환) 추진 전략과 AI 활용 플랫폼 구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정책·예산 분과회의의 참석자들은 농정이행의 핵심기관인 aT의 역할 강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자문위의 세부 논의내용은 ▲임선부 대상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시군 순회 밀착홍보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환급행사 운영 효율화 ▲현지 당국과 위·모방품 공동 단속 협력 ▲동남아 이슬람권 대체 수출시장 지원 체계화 등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식품 포장재 매점행위 단속 강화

농식품부, 포장재 수급불안 대응
나프타 원료난에 현장점검 확대
선구매·가수요·매점행위 점검



지난달 15일 서울의 한 시장에 플라스틱 용기 상품이 진열돼 있다. /뉴스

정부가 식품 포장재 관련 매점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라 포장재·포장용기의 공급 차질이 빚어진 데 따른 조치다. 또 식품업체 애로를 접수하는 창구를 확대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 포장재의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응해, 포장재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횟수를 늘리겠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중동 사태로 인해 나프타 등 석유화학계 원료 수급 불안, 국제물류비 상승 등이 발생하면서 식품 및 외식업계의 포장재 조달 부담이 가중되

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포장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원료 확보 상황 및 생산·납품 동향 파악에 나섰다. ▲과도한 선구매 ▲가수요 발생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아울러 그간 식품 관련 단체·협회별로 운영되던 애로신고 창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 통합·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나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소상공인, 중소·영세 식품기업도 포장재 수급불안, 납품지연, 물류비 상승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접수된 사항은 aT가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녹조계절관리제 첫 시행... 선제대응 강화

기후부, 15일부터 5개월간 집중 관리

정부가 녹조에 대한 선제적 예측을 강화하고 모니터링에도 적극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제1차 녹조계절관리제를 실시한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계절관리제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다.

녹조발생의 사전 예방을 위해 농·축산분야까지 포함한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양분이 하천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농경 밀집지를 중심으로 장마 전 양분차단대책을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 축산환경관리원 등 환경·농업 전문기관은 ‘기축분뇨 유래 양분관리 협의체’를 구성한다.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기술지원도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야적퇴비 정밀조사 기간과 횟수를 늘리고(봄→봄·가을), 모바일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주적 점검으로 야적



지난해 강원도 소양강 상류에 발생한 녹조. /뉴스

퇴비가 적정 처리(덮개·수거)되도록 관리한다.

생활계 오염원 저감을 위한 개인하수시설 관리도 확대한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322곳에 대해 전문기관 위탁 관리를 시행하고, 1만500가구를 대상으로 영세 정화조 청소 지원도 나선다. 또 관계기관의 선제적 녹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녹조 예보와 감시도 강화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국마사회, 안전관리등급 2년 연속 우수

AI 기반 플랫폼 등 안전 역량 인정

한국마사회가 재정경제부 주관 ‘2025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 2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는 작업장·건설현장·시설물·연구시설 등 4대 위험요소를 보유한 104개 공공기관을 대상

으로 안전관리 역량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관련 평가 시작된 이후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아직 없다. 2등급이 사실상 최고 등급으로 평가받는다.

한국마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정부의 안전과 책임 기반의 AI 기반사회 실현’ 정책이 발맞춘 AI 연계 안전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기

관장 주도형 안전회의 및 참여형 상시 현장점검 운영 ▲안전 전담조직 및 안전예산 확대 ▲시설물 체계적 관리를 통한 선제적 위험 예방 ▲현장 안전보건 활동 및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노력 등이다.

우희중 마사회장은 “임직원은 물론 협력사 근로자와 경마장을 찾는 고객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한 결과, 2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